

주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G디스플레이에 보내주시는 변함 없는 신뢰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2021년은 회사가 3년 만에 흑자전환이라는 의미 있는 전환점을 만들어 낸 해였습니다. 매출은 역대 최대인 29조 8천 780억 원, 영업이익은 역대 두 번째 규모인 2조 2천 30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무엇보다 미래 사업의 중심축인 OLED 부문에서 본격적인 성과 창출 단계로 진입한 것이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대형 OLED 사업은 '20년 대비 70% 이상(수량 기준) 성장하며 프리미엄 TV시장에서 지위를 공고히 했고, 모바일 OLED는 안정적인 운영역량 확보와 핵심 고객과의 협업 강화로 안정적 성장궤도에 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OLED 사업의 매출비중은 '17년 9%에서 지난해 36%까지 확대됐습니다. 또한 LCD 부문에서도 고부가 IT 영역으로의 집중과 구조혁신을 통해 높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3년간 연결 당기순이익의 20%를 배당하는 주주환원정책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안정적인 성과 창출과 지속적인 미래성장을 위한 사업구조 고도화

LG디스플레이는 안정성과 성장성, 그리고 혁신성이 조화를 이룬 사업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장에 따라 이익의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는 '수급형' 사업 비중을 축소하고, 핵심 고객들과 전략적 협업을 통해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주형' 사업 비중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새로운 고객경험과 가치를 기반으로 미래성장을 견인할 '시장창출형' 사업도 적극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사업 부문별로 보면, 대형 OLED는 그 동안 축적해 온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차별화 제품과 기술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주요 고객들과의 전략적 협업을 통해 후발주자들과의 격차를 벌려 갈 것입니다. 나아가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신규 제품 영역으로의 진입을 본격화하고 이종 산업분야와의 협업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차별적 경험과 디자인을 제공하는 '게이밍 디스플레이'와 '투명 디스플레이'를 통한 신규 시장 창출이 우선 추진과제가 될 것입니다.

모바일 OLED는 핵심 고객 중심의 안정적 운영체계를 강화하고, 고객 요구에 기반한 미래기술 준비로 경쟁력을 높여갈 것입니다. 또한 모빌리티(Mobility) 산업은 POLED를 포함한 다양한 기술과 제품이 모두 적용 가능해 중장기 성장 모멘텀이 큰 영역입니다. 자동차는 물론, 항공과 선박 등 모빌리티 산업 전반으로 시장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형 OLED는 앞선 기술 경쟁력과 고객 기반을 바탕으로 지난해 양산투자를 결정하였고, 이를 통해 새롭게 열리고 있는 시장을 선점해 나가겠습니다.

LCD 사업은 시황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강점을 지닌 고부가 프리미엄 제품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고객가치를 주도적으로 제안하는 단계로 진화해 가겠습니다.

지속가능한 환경과 사회를 위한 책임경영 실천

LG디스플레이는 지속가능한 환경과 사회를 위한 책임경영 실천에 앞장서겠습니다.

먼저, 기후위기에 대응한 행동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친환경 공정기술 개발과 설비투자 등을 통해 지난 수년간 탄소배출량을 크게 줄여 왔습니다.('14년 773만 톤→'21년 478만 톤). 앞으로는 회사의 노력뿐 아니라 학계·연구기관·협력업체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생산공정에서의 탄소감축기술과 친환경 제품의 개발,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기업이자 공동체 일원으로서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더욱 강화해 갈 것입니다. 회사는 물론 협력사 임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안전문화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임직원과 협력사,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들과 더불어 성장하는 상생구조를 만들어 가기 위한 활동을 확대해 가고자 합니다.

거버넌스 영역에서는 지난해 ESG위원회와 내부거래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사회와 다양성과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내부감시기능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주주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확대와 투명한 정보공개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주주 여러분,

디스플레이는 비대면·원격문화의 정착과 디지털 전환(DX)이라는 흐름 속에서 다양한 소통과 경험의 장이자 현실과 가상을 잇는 다리로서 역할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디스플레이 산업에 새로운 기회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회사는 환경변화에 최적화된 기술과 제품, 그리고 사업모델의 혁신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가겠습니다.

더 큰 도약을 모색하는 LG디스플레이에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월

LG디스플레이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정호영

